

일반채무자 못 갚는 빚도 최대 90% 탕감

15년 이상 장기 채무자 우선 적용... 점진 확대
‘성실상환자’ 상환 기간 12개월→9개월로 단축

금융위 채무조정개정안 확정

채무부담 경감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빚의 최대 90%를 탕감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

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이 밖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

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면율 확대 적용은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은 원금감면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해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우선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저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신용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치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분할납부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7.11 (-6.96) ↑ 금리 (국고채 3년) 1.31% (+0.01)

↓ 코스닥 686.76 (-1.83) ↑ 환율 (USD) 1107.90원 (+5.50)

광양항 물동량 1년전보다 11% ‘뚝’

8월 전국 1억445만t 5.8% ↓ ... 목포항 소폭 상승

8월 광양항 등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총 1억445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항만물동량 가운데 수출입 화물은 9368만t, 연안 화물은 2077만t을 각각 차지했다.

항만별로 보면 목포항, 포항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동량이 각각 4.8%, 1.4% 증가했다.

반면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각각 11.4%, 11.1%, 11% 줄었다.

품목별로는 화공품이 전년 대비 8.6%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기계류(3.4%)와 양곡(2.3%)도 늘었다. 철재(15%)와 유엔탄(14.7%), 목재(13.5)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항만의 비(非)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총 7859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 줄었다.

목포항은 유엔탄 수입과 연안운송을 통한 유류 입항 물량이 늘면서 이 기간 비컨테이너선 처리 물동량이 3.5% 성장했다.

포항항은 철강재 생산을 위한 광석 수입 조정으로 인해 광석 수입 물량이 일

시적으로 늘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항은 유류 품목의 물량 감소, 전월 바닷모래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조정의 영향으로 처리 실적이 16.3% 감소했다.

광양항은 글로벌 철강의 수요 부진과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철강재 수출이 줄고 원자재인 광석 수입이 감소하면서 13.3% 하락했다.

8월 전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한 212만 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159만6000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3.9% 증가한 18만TEU의 물동량을 기록했고, 인천항은 중국, 베트남 등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8.9% 성장한 21만9천TEU를 처리했다.

한편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1억4114만TEU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불법 추심뎨 채권 넘긴 금융사도 처벌

금융위, 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전하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불법 추심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

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돼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A은행이 넘긴 채권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현재는 C캐피탈으로 가 있다는 이력을 더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



임술에 몰드는 가을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소비자가 립스틱을 살펴보고 있다. 이 화장품코너에서는 27~28일 을 가을 트렌드 메이크업쇼와 신제품 출시기념 테스트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무역아카데미’ 다음달 10일 개강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지역 무역업체 및 임직원의 무역실무능력을 높이고 무역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광주 무역아카데미’를 내달 10일 개강한다.

이 강좌는 종합무역실무강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개최된다. 수출입절차 및 계약 실무, 무역 운송, 해외마케팅, 무역영어, 한·중FTA 특강, 수출입대금결제, 외환리스크 관리 등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무역업체 임직원, 무

역업 창업 예정자, 대학생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정을 다 수료한 수강생이 소속된 기업은 광주시 수출진흥자금 융자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접수는 내달 5일까지고, 선착순 50명이다.

신청 접수는 10월 5일까지 선착순 50명 정원으로 마감되며, 교육은 내달 10일부터 평일 야간에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943-9400·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재규어랜드로버-효성프리미어모터스 MOU

내년 순천·부산·울산 등 신규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23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프리미어모터스와 딜러십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효성프리미어모터스는 재규어가 판매망 확대를 추진하는 부산(제2전시장), 울산, 포항, 순천 지역의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 4개 지역에는 내년 중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수입자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효성프리미어모터스를 딜러로 영입하면서 전국 단위의 딜러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 네트워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백정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는 “수입자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효성프리미어모터스와의 신규 파트너십은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이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현재 전국에 20개의 전시장, 22개의 서비스센터, 5개의 APO 인증중고차 전시장, 1개의 부티크 전시장, 27개의 서비스센터, 9개의 인증중고차 전시장, 1개의 부티크 전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바이스카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아트패션시트

5분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새지 않고 1년 이상 유지되는 실험 동영상 전시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후원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종로문화센터 옥상방수 시공사례 성명대학교/강령보건소/대전대학교/태백시보건소
만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안동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010-6603-040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